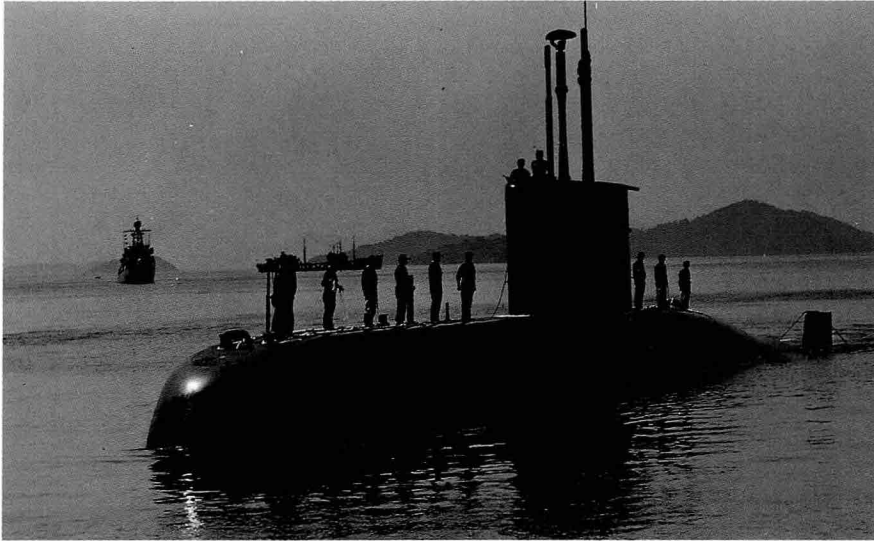


한국 해군

잠수함시대 개막

- 장보고함 취역, 「立体戰力」 기반 구축 -



해군 은 6월 2일 경 남 진해항에서 權寧海 국방부장관, 李養鎭 합참의장, 金弘烈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軍 관계인사와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함장 : 安炳九 대령)의 취역식을 가짐으로써, 잠수함 실전배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장보고함은 1천2백톤급의 독일 209형 최신에 잠수함으로, 동급의 잠수함 가운데 성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해군에 잠수함 시대가 열렸다. 이날 실전배치된 장보고(張保臯)함은 독일에서 건조된 1천2백톤급 209형 현대식 잠수함으로 평균시속 22노트로 水中을 항해하면서, 대함(對艦)미사일과 어뢰를 발사할수 있는 최첨단 지휘통제 및 사격통제 체제를 탑재하고 있으며, 약 2개월간 단독작전을 수행할수 있다.

한국 해군의 숙원사업인 잠수함 확보계획에 따라 1천5백억원을 주고 독일 HDW社로부터 인수한 장보고함은 전자전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25척을 보유하고 있는 'W급'과 'R급' 잠수함보다 수중속력과 기동성이 우수하고 소음이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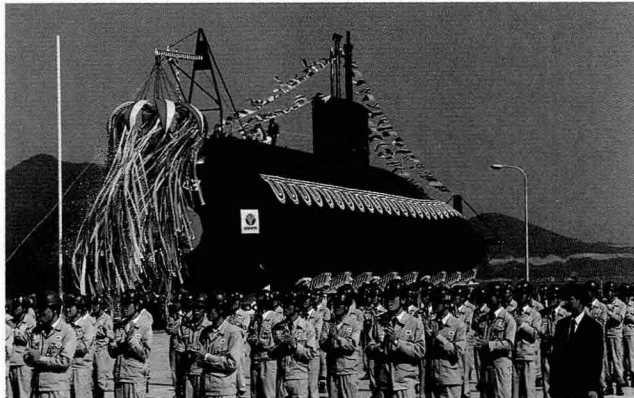
잠수함 시대 개막으로 한국 해군은 수중, 수상, 항공전력을 갖춘 입체적인 해군력을 건설할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으며, 수중전력 면에서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처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유사시 처잠수함전은 물론 水上전함공격, 조기경보 제공, 주요기지 무력화 및 봉쇄작

전을 수행하고, 주요해역 방어, 해상교통로 보호 등 수중·수상·항공 입체작전을 수행하는데 큰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군은 장보고함 취역에 이어 국내에서 건조된 이천(李陔)함을 오는 94년초 실전배치하는 등 98년까지 6척의 잠수함을 보유할 계획이다. 이천함은 대우조선이 독일 HDW와 기술협력으로, 지난해 10월 진수식을 가진 뒤 현재 작전시험 평가중이다.

작년 10월 12일 진수식을 가졌던 이천함 장보고함과 同型으로 대우조선이 선체를 건조하였다



해군은 그동안 잠수함 등 북한의 수중전력에 구축함 증강으로 맞서 왔으나, 이같은 전력만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82년부터 잠수함 사업을 검토해왔으며, 8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해군은 98년 이후에는 대지(對地), 대공(對

空)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중형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이다.

고난도(高難度)의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잠수함의 국내건조는 고부가 가치를 갖는 관련 기술의 국내 축적으로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부품생산 및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참, 3軍 합동 컴퓨터 「워 게임」 첫 실시

- KIDA와 공동으로 한국군 최초 자체 실용화 성공 -

우리 軍에서는 최초로 자체실용화에 성공한 3軍합동 컴퓨터 전투 모의훈련(War Game)이 실시됐다.

합참은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공동으로 을지훈련기간인 6월21일부터 5일간 3군합동 전구(戰區)급 워게임모델인 JTLS(Joint Theater Level Simulation)를 적용한 소규모 CPX(지휘소 훈련)워게임을 실시했다.

합참은 88년 육·해·공 3軍이 합동으로 워게임을 할수있는 모델인 JTLS 소프트웨어를 韓美연합사로부터 도입하였으며, 15명의 합참 및 국방연구원 요원으로 연구개발팀을 구성해, 90년부터 자체 실용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3년동안 전·후방의 모든 부대를 방문해 수집한 자료는 15종 3백50만건에 이른다.

이번 워게임 훈련에 적용된 JTLS모델은 본래 美 합참이 지난 82년부터 3년간 박사급 전문가 50명과 3백만불을 투입하여 최초 개발한 전구급 3군 합동작전 모의 모델이다.

워게임은 입력되는 정보의 정확성 여부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무기·장비외적인 전투력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軍관계자들은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적으로 韓美연합사에 의존해왔던 워게임 훈련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실용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훈련이 軍과학화의 중요한 轉機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훈련과 관련하여 李養鎬 합참의장은 6월 23일 국방연구원을 방문하여, 『이제 우리



한국군 최초의 戰區급 워게임 훈련이 6월 23일 합참과 한국국방연구원 공동으로 실시됐다 (사진은 육군의 컴퓨터 워게임 운용 모습)

군도 완벽한 것은 아니나, 독자적인 합동 워게임을 실시함으로써 훈련의 과학화를 이룰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아직도 우리의 워게임 기법을 활용한 지휘관/참모위주 전쟁지휘 연습능력은 제한적이며, 독자적인 합동훈련시 시설, 장비, 훈련요원의 소요자원 적정규모 검토 및 전쟁연습 수행절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李養鎬 합참의장은 『향후 한반도 군사 훈련 환경변화 및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에 대비하여 합참 주도의 한국군 단독 합동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할수 있는 워게임 운용능력 증진에 가일층 진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군본부, 〈현대 항공무기 총람〉 발간

- 항공무기체계 이해를 돕는 종합 안내 지침서 -

공군 본부(전투발전단)가 91년 9월부터 14명의 공군내의 전문가(박사요원 등)를 선정하여 1년6개월여의 노력끝에 국내 처음으로 항공무기체계의 이해를 돕는 종합소개 안내서인 〈현대 항공무기총람〉을 발간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항공력의 이해를 위한

현대항공무기 총람



공 군 본 부

각국에서 운용하고 있거나 개발중인 모든 항공무기체계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문요원뿐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Jane's〉 군사연감의 전개방식을 응용하여, 항공무기체계의 분류 및 항공기를 비롯한 항공무장, 항공전자장비에 관한 명칭, 개발배경, 성능 및 발전 전망까지 상세히 수록되어 있으며, 각종 도표와 함께 7백여매의 컬러 및 흑백사진을 활용하여 비전문가의 이해가 쉽도록 짜여져 있다.

총 4장, 5백77쪽으로 구성된 〈현대 항공무기총람〉은 앞으로 공군은 물론 육·해군, 국방부 등 군 내부와 언론기관, 방산업체, 방산관련 연구소 등 관련기관에 배포되어 항공무기체계의 이해를 돕는 주요 지침서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泰)

(자료문의 : ☎ (042)552-5441)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항공무기체계를 종합적으로 알기쉽게 설명한 안내서가 소요군에서 발간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공군본부 전투발전단이 펴낸 〈현대 항공무기총람〉이라는 제목의 이 안내책자는 현재 세계

대한항공, 美 공군 F-16 전투기 개조사업 受注

- 3년간 100여대 개조, 순수 기술용역비만 5백만불 -

대한항공 이 美 空軍의 F-16 전투기 개조사업을 수주, 6월 15일 金海工場 주기장에서 1호기 入庫式(오른쪽 위의 사진)을 거행했다.

3년간에 걸쳐 약 100대를 개조할 이번 사업은 F-16 주날개와 전방가변보조날개를 더욱 높은 하중에도 견딜수 있도록 내구성 향상을 도모하는 기골 성능 개선 작업으로, 美 공군이 이 분야의 개조사업을 해외에 발주한 것은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지난 79년부터 美 육·해·공군의 각종 최첨단 전투기에 대한 개조 및 창정비(완전분해정비) 사업을 수행해온 대한항공은 91년에 이미 1천대 출고 기록을 돌파했으며, 연간 2,500만불 이상의 외화획득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방산업계 대표단 프랑스 및 스페인 방산업계 방문

- 韓·佛 방산위원회 제2차 회의 및 파리 에어쇼 연계 -



국내 방산업계 대표단은 한·불 방산위원회 회의와 파리 에어쇼를 연계하여 프랑스 및 스페인을 방문하였다
왼쪽 사진은 제2차 회의 전경이며, 오른쪽 사진은 프랑스 닷소에서 함께 자리한 대표단 일행

민간 차원에서의 방산협력 활동 강화와 방산물자 수출시장 개척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鄭秀烈 상근부 회장을 비롯한 국내 방산업계 대표단이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및 스페인 방산업계를 시찰하였다. 특히 이번 방문은 韓·佛 방산위원회 제2차 회의 및 제40회 파리에어쇼와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 프랑스측은 국방부 군비국(DGA) 해외협력담당관이 군비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는등 상호협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기 회의를 한·불 방산·군수 공동위원회 개최 직

전인 내년 2/4분기중 제주에서 개최하며, 창원 지역의 산업시찰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구체적 협의를 위해 현행 위원회 산하에 2~3개 분과위원회(sub-committee)를 구성·운영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제40회 파리 에어쇼를 참관한 우리 대표단은 파리지역(4개사)과 보르도지역(2개사)을 순방하며, 아에로스빠시알社등 6개 업체를 시찰하였다.

스페인에서는 국방부 무기물자총국장을 예방한데 이어, 스페인 방산협회(AFARMADÉ)을 방문하여 상호관심사를 협의하였으며, CASA社등 4개 업체를 시찰하였다.

재무부, 防産 관세감면 4년 연장 검토

- 원·부자재 매년 10%, 시설재 매년 5%씩 인하 -

재무부가 「신경제 5개년 계획」중 제도 개선사항으로 租稅의 형평화 및 稅收증대와 함께, 특정산업 감면은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98년이후에는 폐지한다는 취지아래, 올해말로 끝나는 방위산업에 대한 관세감면을 4년 연장하되, 98년부터는 폐지하는 방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防産用品 가운데 관세감면을 받는 것중 시

설재의 경우는 절대규모(금액)가 크지않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원·부자재의 경우는 현행 100% 감면에서 95년부터 매년 10%씩 하향조정하며, 98년에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우려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에 따른 부담액은 약 5백억원으로 추산되며, 낮은 가동율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방산업계에 상당한 압박을 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40회 파리 에어쇼 성황리에 폐막

- 전세계 38개국 1천5백73천 출품 -

세계 주요항공기메이커들이 새로운 항공기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6월 11일 프랑스 파리 부근 부르제에서 개막된 제40회 에어쇼를 계기로 주요항공사들이 새로운 항공기개발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신모델생산을 위해 치열한 수주전을 전개해 세계 항공기시장의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38개국에서 모두 1천5백73개사가 출품한 이번 에어쇼에서는 특히 에어버스사가 새로운 중형항공기 A319개발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보잉 및 에어버스사가 슈퍼 점보여객기 공동개발

이번 에어쇼는 1백30개국의 40여만명이 참관했다 사진은 스페인 CASA사의 屋内 전시코너



발계획을 내놓아 항공기 수요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같은 신모델개발은 21세기 세계항공기시장을 겨냥한 보다 향상된 성능과 품질을 갖춘 첨단 항공기개발을 통해 최근 몇년간 겪고 있는 극심한 불況을 타개하려는 자구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에어쇼에서는 러시아의 투볼레프사와 미국의 로버트 플레밍사, 영국의 롤스로이스사의 3국간 성공적인 합작사례로서 U-204機가 선을 보였으며, 러시아의 일류신사가 내놓은 새 기종인 IL-96M기가 서구

캐나다는 프랑스 아에로스빠시알사의 Eryx 유선유도 단거리 대장갑 미사일시스템 도입에 서명하였다 425대 발사대와 4500발에 가격은 1억6백만불이었다



모델들보다 25%정도 저렴하여, 많은 이들로부
터 관심을 끌었다.

또한 이번 에어쇼에서는 여러 商談이 계약
으로 이어져 주목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알
려진 것은 캐나다가 발주한 프랑스 아에로스
빠시알社의 Eryx 대전차 유도탄 도입건과 인
도네시아 정부가 발주한 영국 BAe社의 Hawk
제트훈련기 계약이었다.

캐나다의 Eryx 도입계약은 프랑스의 처캐나
다 방산장비 판매중 가장 큰 세일이었으며, 이번
에어쇼중 Eryx 처재장 유도탄의 첫 계약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영국 BAe사의 호크 제트훈련기
24대를 7억6천5백만불에 도입, 계약하였다

국산 관측로켓 “과학1호”발사 성공

- 28억 들여 개발... 1백88초 비행, 한반도 상공 오존층 측정 -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관측로켓인
「과학1호(KSR-420S)」가 6월 4일
서해안 태안반도에 위치한 충남 安興종합시험
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과학1호는 이날 차량전인식 이동발사대에
장착돼, 발사 60초전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뒤, 10시에 발사대에서 69도 각도로 바다쪽을
향해 지상 38.6km까지 쏘아 올려져 1백88초동안
제공하는 사이 한반도 상공의 오존층·이온층
측정등 관측업무를 수행했다.

길이 6.72m, 직경 42cm, 무게 1.4톤의 1단계형
고체추진 탐사로켓인「과학1호」는 한반도주변
의 대기상태와 오존층·이온층등 관측자료를
지상에 있는 수신장치로 전송한뒤, 87km 떨어진
서해바다로 사라졌다.



성공적으로 발사된 「과학1호」는 한국항공우
주연구소 柳長壽박사팀과 서울대, 삼성항공등
3개대학 5개기업에서 3백22명의 연구인력이
참여, 90년 7월부터 3년간 총연구비 28억 4천7
백만원을 들여 순수 국내기술로 만든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소는 과학1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계기로 대전엑스포 행사기간중인 오는
9월 고도 66.6km 상공에 동일 기종의「과학2호」
로켓을 발사하고, 96년에는 길이 10.3m, 중량 2
톤, 고도 2백km급의 2단 중형 과학관측로켓을
개발해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